

조선대, 글로벌대학 선정 역량 총집중

소위원회 구성 제안발표회 개최 상무대·광주시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조선대가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을 꾸리고 상무대, 광주시의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며 올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지정을 위해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발표회를 진행하는 등 전방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및 생태계 조성, 대학-도시 융합을 통한 혁신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조선대는 이번 제안발표회를 통해 공유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월 제출할 신청서를 꾸밀 예정이다.

한편 조선대는 올해 글로벌대학30 사업 지정을 위해 앞서 지난 1월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을 꾸리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상무대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선도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며, 김이수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이 정부청 광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대학-의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하며 글로벌대학30 사업 지정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조선대학교 총동창회도 26만 동문의 힘을 모아 '모교 발전 자문단'을 구성, 모교의 글로벌대학30 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대학30은 정부가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하며, 지난해 10곳을 선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열린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소위원회 제안 발표회.

<조선대 제공>

광주시교육청 '광주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 인재 수도권 이탈 막고 지역발전 선순환 시스템 구축 목표

광주에서 처음으로 '광주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공모'에 응모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시는 "다양한 실력으로 내일이 빛나는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주제로 시범지역 운영기

획서를 제출했다.

'광주형 교육발전특구'에는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광주형 AI 인재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AI·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강화, 돌봄 확대 및 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4대 전략 과제와 13개 주요 추진 과제를 담았다.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 구청, 상공회의소, 광주연구원 등 30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들의 진학도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AI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유·초·중·고)-반도체특성화·AI융합대학(대)-반도체공동연구소(대학원)-AI사관학교(실무)로 이어지는 AI인재성장사다리를 구축해 AI인재의 성장부터 정주까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돌봄정책과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연계하는 내용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 광주가 교육도시로 다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진학에서 취업·정주까지 걱정 없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8년 연속 선정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교육부 주관의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 평가에서 8년 연속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글로벌 대학으로서 위상을 공인받았다. 호남대는 지난 2017년부터 8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교육의 품질과 국제화 역량에 대한 공인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함께 우수

외국인 유치 확대·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평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이뤄진다.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등 6개

영역을, 어학연수과정은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등 7개 영역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호남대는 지속적인 유학생 수 증가에 따른 질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과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교육의 국제화를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킨 노력의 결실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한국김치·발효음식 우수성 알린다

광주 김치타운관리사무소와 MOU 체결...체험·교육협력 등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김치타운관리사무소(소장 노형근)와 최근 송원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송원대 재학중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김치와 전통발효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송원대는 '천년의 맛 발효음식'이라는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맡는다.

협약식에는 송원대 산학협력단 한재호 단장, 대학혁신사업단 김호연 단장, 송원대 이성진 교무처장 및 식품영양학과 박연옥 학과장이 참석했다. 김치타운관리사무소 노형근 소장, 이현필 운영팀장, 김재훈 사업담당 주무관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 협력, 두 기관 주최 각종 행사 협력 등에서 공

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김치와 발효식품, 전통향토음식 관련 체험 교육지원 및 효율적 사업 수행 협력 등을 약속했다.

김치 및 발효식품, 전통향토음식 관련 기관 대상 프로그램 공동 수행 등 한국김치와 전통발효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재호 단장은 "송원대학교에 재학중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김치와 전통발효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역사·체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웹소설창작연구소, 웹소설 콜로키움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 학술교류 협정 체결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웹소설창작연구소는 최근 학교 행정관 3층 스마트강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문학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학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대 웹소설창작연구소장 이기호 교수와 김영찬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장, 김형중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장 외 광주대, 계명대 교수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콜로키움은 국내외 웹소설의 현황과 특징을 진단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문학적 글쓰기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콜로키움에서는 광주대 문예창작과 조형래 교수가 '웹소설의 사상, 형식, 역사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계명대 러시아 중앙아시아학과 김성완 교수가 '러시아 웹소설, 웹툰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각각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 또 웹소설창작연구소와 인문과학연구소는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디지털 플랫폼과 웹소설을 주제로 향후에도 학술교류를 지속해 가기로 했다.

김영찬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장은 "콜로키움



을 준비한 웹소설창작연구소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국내 웹소설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대 측의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호 웹소설창작연구소장은 "웹소설창작연구소 개설 이래 첫 콜로키움을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와 함께하게 돼 뜻깊다"면서 "학부 대학원을 통틀어 웹소설 교육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술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